

2012학년도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국 어

2차 시험	2교시	2문항 50점	시험 시간 120분
-------	-----	---------	------------

수험생 유의 사항

1. 문제지(초안 작성 용지 포함)와 답안지의 전체 면 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시오. **답안지는 문항당 2쪽(교시당 4쪽), 초안 작성 용지는 교시당 4쪽입니다. 답안은 문항당 2쪽 이내로만 작성하시오.**
2.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 수험 번호, 문항별 답안지 쪽 번호를 해당란에 '●'로 표기하시오.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시오.

	1번 문항, 1번째 답안지 표기		1번 문항, 2번째 답안지 표기	
예시	문항 1 전용 답안지	쪽 번호 표기란	문항 1 전용 답안지	쪽 번호 표기란
		● ②		① ●

3.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시오(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
4. 수학, 과학 과목 등 필요한 경우 답안지 가운데 선을 그어 좌우의 2단으로 나누어 답안을 작성해도 됩니다.
5. 답안지에는 문항 내용을 일절 옮겨 적지 마시오. 단, 하위 문항이 있을 경우, 하위 문항의 번호(1-1, 1-2)를 답안지 앞부분에 쓰고 답안을 작성하시오.
6. 각 문항 답안 작성 후 **마지막 문장 뒤에는 반드시 '끝' 자를 쓰시오**(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각 하위 문항에도 '끝' 자를 쓰시오.).
7. 답안 초안 작성은 문제지의 맨 뒷부분에 있는 초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시오.
8. 답안 수정 시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두 줄(=)을 그으시오.
9.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오.**
 - 문항당 답안지 2쪽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
 - 답안란 이외에(뒷면 등) 작성한 부분
 -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개인 정보를 노출한 답안지 전체
 - 개인 정보를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
10.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11.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도 성명, 수험 번호, 문항별 답안지 쪽 번호를 기재·표기한 후, 4쪽 모두 제출하시오.**

3. '품사 분류의 효용성을 국어 생활과 관련하여 설명한다.'라는 학습 목표로 수업을 하고자 한다. <조건>에 따라 한 편의 글로 논술하시오. 【30점】

(가) [학습 활동]

지난 시간까지 배운 품사 분류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에서 ①~⑦ 각각에 대해 형태는 같지만 품사는 다른 단어를 찾고, 각 쌍의 두 단어가 어떤 품사에 속하는지 알아보자.

A: 너 ①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B: 글썸? 동아리 모임이 있는 날?

A: 너 정말 ②인간적으로 너무한다. 내 생일이야. 생일. 선물 줘.

B: 미안. 생일 선물은 다음 주에 주면 안 될까?

A: 너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격언도 못 들어 봤니?

B: 친구 생일도 기억 못 하는 나의 인간적 한계를 용서해라. 입이 ③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

A: 다음에 준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백이면 백' 다음 주에도 잊어버리던데.

B: 용돈이 떨어져서 그래. 이번 달 용돈 받는 ④대로 사 줄게.

A: 좋아. ⑤보다 멋진 선물 기대할게. 그 대신 오늘 저녁 메뉴는 내 마음대로 고른다.

B: 알았어. 근데 나는 햄버거보다 떡볶이가 좋더라. 그나저나 모임 준비물은 가져왔어?

A: 아이고, 깜빡하고 교실에 두고 왔네. 가지러 가야겠다.

B: 내가 가져다줄 테니까 너는 ⑥다른 애들 기다리면서 그냥 동아리방에 ⑦있어.

A: 예전과 태도가 다른 게 어색하긴 하지만 고마워. 교실 문 잠겼을 텐데 열쇠는 있어?

B: 응. 금방 갔다 올게.

(나) [토의 과정]

학생 갑: ①부터 ⑦까지와 대응하는 단어는 다 찾았는데, 그중 몇 개는 품사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다. 특히, '동아리방에 있어'의 '있어'랑 '열쇠는 있어'의 '있어'가 그래. 둘 다 형태 변화가 가능하고, 문장에서 서술어로 사용되었으니까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 건 알겠는데, 뭐가 동사고 뭐가 형용사인지는 잘 모르겠어.

학생 을: 동사랑 형용사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 나는 '받는 대로'와 '마음대로'의 '대로'를 잘 모르겠어.

학생 갑: '받는 대로'의 '대로'는 띄어 쓰고 '마음대로'의 '대로'는 붙여 쓴 이유가 품사 때문이라고 하신 건 기억나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중략)

교 사: 다들 단어를 찾아서 품사를 알아봤나요? 이제 국어사전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결정한 품사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중략)

학생 병: 사전을 찾아보니 '오늘', '인간적', '백', '있어'는 한 표제어 속에 두 품사가 함께 나와 있네.

학생 정: 그런데 '대로', '보다', '다른'은 품사에 따라 서로 다른 표제어로 실려 있어. 두 경우의 차이가 뭘까?

<조 건>

(1) (가)의 ②, ⑥과 형태가 동일하지만 품사는 다른 단어를 (가)의 대화에서 각각 찾고, 네 단어가 각각 어떤 품사에 속하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할 것.

(2) (나) '학생 갑'과 '학생 을'의 대화를 바탕으로 두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도 방안을 서술할 것.

(3) (나) '학생 병'과 '학생 정'의 대화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 내용을 서술할 것. 단, 두 품사로 통용되는 단어의 유형 네 가지를 골라서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국어 품사 통용 현상의 특성을 밝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4. (가)와 (나)를 활용하여 ‘문학을 통하여 타자의 삶의 방식과 조건을 이해한다.’라는 학습 목표로 수업을 하고자 한다. <조건>에 따라 한 편의 글로 논술하시오. 【20점】

(가) 알록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르뎠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발을 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드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미더운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히 잠겨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차알씩 부서지는 파도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내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아닌 봄을 불러줄께

손때 수집은 분홍 댕기 휘 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감아치는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나) ‘돈 주고 양반을 사!’

이것이 상훈이에게는 일종의 굴욕이었다.

그러나 조의관으로서 생각하면 이때껏 자기가 쓴 돈은 자기 부친이 물려준 천량에서 범용한 것이 아니라 자수로 더 늘린 속에서 쓴 것이니까 그리 아깝지도 않고 선고(先考)의 혼령에 대해서도 떳떳하다고 자공하는 것이다. 저 잘나면 부조(父祖)의 추증(追贈)도 하게 되는 것인데 있는 돈 좀 들여서 양반 되기로 남이 웃기는새로에 그야말로 이현부모(以顯父母)가 아닌가 하는 요량이다. 어쨌든 4천 원 돈을 바치고 조상 신주 모시듯이 ××조씨 대동보소의 문패를 모셔다가 크나큰 문전에 달고 ××조씨 문중 장손파가 자기라는 듯싶이 버티고 죽보까지 박게 되고 나니 이번에는 ××조씨 증시조인 ○○당 할아버지의 산소가 수백 년래에 말이 아니 되었으니 다시 치산(治山)을 하고 그 옆에 묘막보다는 큼직한, 옛날로 말하면 서원 같은 것을 짓자는 의논이 일어났다.

지금 상훈이가 창훈이더러 일거리가 없어져가니까 또 새판으로 일을 꾸민다고 비꼬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제절 앞의 석물도 남 볼썽사납지 않게 일신하게 해야겠고 묘막이니 제위답(祭位畚)이니 무엇무엇…… 모두 합하면 한만 원 예산은 있어야 할 터인데 받은 저희들이 부담하겠지만 절반 5천 원은 아무래도 조의관이 내놓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양자를 들어가면 재산 상속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없는 양부모면야 벌어서 봉양할 의무도 지는 것이다. 조씨 문중에 돈 낼 만한 사람이 없고 또 벌이지 않았으면 모르거니와 벌인 일인 바에야 시종이 여일하게 깡그러뜨려야 할 일이다. 그러나 5천 원을 저희가 부담한대야 그것은 이 영감에게서 우려내려는 미끼로 하는 헛말임은 물론이요, 이 영감이 내놓은 5천 원에서 뜯어먹으려고나 안 했으면 다행이나 원체가 뜯어먹자는 노릇인 다음에야 더 말할 것도 없는 일, 어쨌든 못놈이 드나들며 굶질거리고 노영감을 쭈석대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못하겠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추수나 하면 내년 봄쯤 어떻게 해보자고 아직 밀어나오는 판이다. 내년 봄이라야 음력 설만 되면 석 달이 못 가서 한식이다.

이 영감에게 제일 신임 있는 창훈이를 앞장세우고 요새로 부쩍 조르고 다니는 것은 어서 급급히 착수할 준비를 하여 한식 다례를 잡숫게 하고 어울려 일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중략)

덕기로서는 도리로 보아도 그렇지만 공부를 집어치우고 살림꾼으로 들어앉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다시 간다고? 못 간다. 내가 살아난대도 다시는 못 간다. 잔소리 말고 나 하라는 대로 할 뿐이다.”

하고 조부는 절대 엄명이었다.

“하던 공부를 그만둘 수야 있습니까. 불과 한 달이면 졸업인데요.”

“공부가 중하냐? 집안일이 중하냐? 그것도 네가 없어도 상관없는 일이면 모르겠지만 나만 눈감으면 이 집 속이 어떻게 될지 너도 아무리 어린애다만 생각해 봐라. 졸업이고 무엇이고 다 단념하고 그 열쇠를 맡아야 한다. 그 열쇠 하나에 네 평생의 운명이 달렸고 이 집안 가운이 달렸다. 너는 열쇠를 붙들고 사당을 지켜야 한다. 네게 맡기고 가는 것은 사당과 그 열쇠—두 가지뿐이다. 그외에도 유언이고 뭐고 다 쓸데없다. 이때까지 공부를 시킨 것도 그 두 가지를 잘 모시고 지키게 하자는 것이니까 그 두 가지를 버리고도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송장 내놓고 장사 지내는 것이다. 또 공부도 그만큼 했으면 지금 세상에 행세도 넉넉히 할 게 아니냐.”

- 염상섭, 삼대 -

<조 건>

- (1) (가) 시에서 ‘전라도 가시내’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시행 하나를 찾아 그 이유를 쓰고, 1~5연에서 작품 내적 근거를 들어 ‘전라도 가시내’의 삶의 여정을 서술할 것.
- (2) (나)의 밑줄 친 부분이 ‘조의관’과 ‘조상훈’에게 각각 어떤 의미인지 소설 전편을 고려하여 서술할 것. 단, 사회·문화적 의미도 포함할 것.
- (3)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을 설계할 것. 단, (가)의 ‘함경도 사내’와 (나)의 ‘조덕기’의 성격, 환경(상황) 및 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